



# 복 통

이 희 우

서울시립학교건강관리소 내과



**기능성 장질환은, 어린이의 경우, 닥쳐오는 위험을 조절하지 못해 오는 질환이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보거나, 더 나이많은 어린이와 경쟁할 때) 처음에는 불안, 격분, 자제력 상실 후 복통, 구역질, 구토가 따른다.**

‘급성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신속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검사를 못한다. 자세한 문진이나 진찰을 할 여유가 없기도 하다. 대부분의 ‘급성복통’은 수술을 요하지 않는다. 또 경미한 복통이 긴급처치를 요하기도 한다.

## 복통의 중요한 원인들

### 1. 복부

① 복막염 (천공된 충수돌기염, 천공된 궤양, 궤장염)

② 장폐색 (대, 소장 및 담도, 요로 막힘)

③ 복부근육 외상과 염증

### 2. 복부와 부위에서 오는 통증

폐염, 협심증

### 3. 대사성

납중독

### 4. 기능성 장질환

배가 아프다고 찾아온 환자들을 살펴보면 ‘기능성 장질환’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호소하는 증상은 복통, 변비와 설사, 소화안됨, 헛배등 다양하다. 대부분 정신적으로 오는 질환이다. 어린이의 경우, 닥쳐오는 위험을 조절하지 못해 오는 질환이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보거나, 더 나이많은 어린이와 경쟁할 때) 처음에는 불안, 격분, 자제력 상실 후 복통, 구역질, 구토가 따른다. 또한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그들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육체적 질환이 있는 체 가장한다. 진찰상 눌러서 통증

이 거의 없다. 소아의 가장 흔한 복통원인은 변비이다. 특히 토할 때는 맹장염과 비슷하기도 하다.

상복부 통증이 있으면 위염, 위궤양, 췌장염, 담석증을 의심한다. 진찰로서는 구분이 어렵다. 위특수촬영, 초음파검사, 혈청 아밀라제치가 진단에 도움이 된다. 우측 하복부 통증이 있으면 충수돌기염(속칭 맹장염), mesenteric adenitis를 의심한다. 진찰로써 구분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진찰시 우하복부를 눌러서 아픴(Direct tender)과 눌렀다 다시 떼 때 아픴(rebound tender)이 있으면 부분적인 복막염과 충수돌기염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을 요한다. 좌측하복부통증과 설사가 있으면 대장염을 의심한다.

통증의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복막염은 일정한 통증이 특징이며 염증위에 직접적으로 위치하기도 한다. 통증의 강도는 복막에 노출된 이물질의 종류, 양과 속도에 달려있다. 예로 위산과 췌장액은 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한다. 복막염의 통증은 압력이나 복막긴장도 변화(기침, 재채기)에 의해 증가된다. 따라서 복막염환자는 움직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다. 복막자극의 다른 특징은 염증부위에 한정되는 복근의 강직성과 반사적 경련이다.

장폐색의 통증은 간헐적 심한 통증(intermittent, colicky pain)이다. 장의 팽창은 일정한 통증(steady pain)을 일으킨다. 소장폐색의 심한 통증은 배꼽 주위나 뒷쪽에 있다. 장이 점점 더 확장되면 통증은 점점 덜해진다. 대장폐색의 통증은 소장의 경우보다 강도가 덜하며

**복통환자가 심한 출혈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하여  
즉시 혈관주사를  
맞도록 한다. 어린이의  
상부위장관 출혈은  
만성소화성궤양 때문이며  
어른에게 발견되는  
것과 같다.**

종종 배꼽 아랫쪽에 있다. 담도나 담낭이 갑자기 팽창될 때 우상복부에 일정한 통증을 일으킨다. 담석증은 어린이에게 흔하지 않다. 간염이 있을 때 간이 커지면서 우상복부에 둔통이 온다. 요로가 갑자기 막힐 때(요로결석) 심한 통증이 하복부에 오며 성기쪽으로 뻗친다. 장폐색, 궤양천공과 요로결석이 있을 때는 복부사진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혈뇨가 있으면 요로결석을 의심한다.

복통환자가 심한 출혈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하여 즉시 혈관주사를 맞도록 한다. 어린이의 상부위장관 출혈은 만성 소화성궤양 때문이며 어른에게 발견되는 것과 같다. 순서적으로 자세한 문진이 어느 검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커피 피색물질을 토하는 것과 까만색의 묽은 대변은 상부위장관 출혈이다.)문진에 있어 통증부위를 강조하는 것보다 사건의 전후 관련순서가 더 중요하다(예로, 충수돌기염은 처음 상복부통증이후에 우하복부통증이 됨) 정확한 진단이 없는 한 진통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약제들이 종종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卍